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2	저자로 하여금—인쇄하도록 해준다	L <sup>A</sup> T <sub>E</sub> X을 사용하면 저자는—인쇄할 수 있다.	사역형이라 바뀌보았습니다.
p.2	1994년에 L <sup>A</sup> T <sub>E</sub> X패키지는—L <sup>A</sup> T <sub>E</sub> X3팀에 의하여 개선되었다.	1994년에 프랑크 미텔바흐가 주도하는 L <sup>A</sup> T <sub>E</sub> X3팀이 L <sup>A</sup> T <sub>E</sub> X패키지를 개선하였다.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p.3	문서라는 것은 읽히기 위해	문서는 읽기 위해	수동형이라서...
p.3	장/절의 구조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장/절의 구조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정해야 한다.	수동형이라서...
p.4	내 입장에서는 그 중 — 없지만, 그런 단점을 수백 가지 지적해	나로서는 문제삼을 만한 단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런 단점을 수백 가지를 지적해	이오덕 선생님 책에서 본 바로는 “입장”은 일본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 번 바뀌보았습니다.
p.5	여러 개의 빈 줄은 하나의 빈 줄과 같다.	빈 줄을 여러 개 넣어도 빈 줄을 한 개 넣는 경우와 똑같은 효과를 낳는다.	
p.8	여기 약간의 도움말을 적어둔다.	여기 도움말을 조금 적어둔다.	
p.9	그것이 하는 일은 — 처리하는 것을 뿐이다.	L <sup>A</sup> T <sub>E</sub> X은 —처리할 뿐이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9	명령을 써넣어야 하는 시스템도 있다.	명령을 써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앞에 “컴파일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가 나와서, 이것과 호응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있다”보다는 “경우도 있다”가 나아 보여서 적어보았습니다.
p.10	첫번째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첫 번째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첫 번째” 띄어쓰기와 “제공되어야”라는 수동형보다는 “제공하여야”라는 능동형이 좋아 보여서 해보았습니다.
p.14	.dtx파일로부터 포함된	.dtx파일에 포함된	“로부터”는 번역투 느낌이 들어서 바꿔보았습니다.
p.14	다음 파일은 L <sup>A</sup> T <sub>E</sub> X로	다음 파일은 L <sup>A</sup> T <sub>E</sub> X으로	
p.14	.aux — 다음번 실행 때	다음 번 실행 때	“다음 번”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14	.idx — 다음번 컴파일 시에	다음 번 컴파일 시에	
p.15	위의 두번째 줄을	위의 두 번째 줄을	“두”와 “번째”는 띄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17	단락이 나누어 졌는데도 이전의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면 합쳐져야 한다.	단락을 나누었는데도 앞에서 다룬 전달내용이 계속 나온다면 단락을 다시 합쳐야 한다.	“나누어 졌는데”는 “나누어졌는데”로 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고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어 한 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18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마침표 뒤에 약어를 표시하는 마침표보다 큰 공백을 둔다.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마침표 뒤에는, 약어를 표시하는 마침표보다 더 큰 공백을 둔다.	
p.19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단락들은 장(chapter), 절(section), 소절(subsection) 등에 포함되면서 상위 수준에서도 구조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구조화는 상위 수준에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논리에 맞추어 장(chapter), 절(section), 소절(subsection) 등을 설정하여 텍스트의 단락들 사이에 배치하는 식으로 구조를 잘 짜야 한다.	원문이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 쓴 것이 좀 더 길지만 이해하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되는 원문만 보았지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p.21	이렇게 하면 인자로 주어진 낱말들은	이렇게 하면 인자로 사용한 낱말들은	“주어진”이 영어식 표현이라 한 번 고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동형이 더 나을 것 같아 “사용한”이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대신 “들어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p.21	특별한 문자열을 식자하는데	특별한 문자열을 식자하는데	“데”를 띄어야...
p.21	쓰이는 간단한 L <sup>A</sup> T <sub>E</sub> X 명령이 사용되었다.	쓰이는 간단한 L <sup>A</sup> T <sub>E</sub> X 명령을 사용하였다.	능동형으로...
p.22	빼기 부호라고 부른다.	빼기 부호라고 한다.	“-라고 부른다”보다는 “-라고 한다”가 우리말에 더 어울린다고 여겨져서...
p.22	hyperref 패키지를 쓰면 이 명령의 인자로 주어진	hyperref 패키지를 쓰면 이 명령의 인자로 사용한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23	최근의 많은 글꼴들이 유로 기호를	최근 많은 글꼴들이 유로 기호를	“의”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를 빼도 문맥에 영향이 없어 한 번 고쳐보았습니다.
p.23	그 다음에는 다음 명령으로 유로 기호를	그 다음에는 아래 명령으로 유로 기호를	“다음”이 반복되어서...
p.23	유로 기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유로 기호가	유로 기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유로 기호가	앞에서 “제공하지”가 능동이라서 뒤에 “제공된” 보다는 “제공한”이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p.26	프랑스어에서는 — 공백이 하나 사용되어야 한다.	공백을 하나 넣어야 한다.	능동형으로...
p.26	\documentclass 명령 다음에 다음의 명령을	\documentclass 명령 다음에 아래의 명령을	“다음”이 반복되어서...
p.28	포르투갈어에서는 많은 수의 강제 표시 문자가 사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이들 문자를 정확히 입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르투갈어는 강제 표시 문자를 많이 사용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들 문자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능동형으로...
p.28	또한 분철을 제대로 작동 시키려면	또한 분철이 제대로 작동 하려면	“시키려면”과 같은 사역형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고쳐보았습니다.
p.29	위의 명령은 프랑스어 분철을 작동시킨다.	위의 명령으로 프랑스어 분철이 잘 된다.	사역형이라서...
p.32	즉, 마침표 등의 뒤의 공백이 다른 공백보다	즉, 마침표 등의 뒤에 나오는 공백이 다른 공백보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34	틸드 문자	틸데 문자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틸데”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36	컴파일 결과로부터 장절 제목과 쪽 번호를 취해서 차례를 만들어낸다.	컴파일 결과에서 장절 제목과 쪽 번호를 얻어 차례를 만든다.	“로부터”가 나와서... 그리고 “만들어낸다” 보다는 “만든다”가 나아 보여서...
p.36	어떠한 경우에는 세 번 컴파일해야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 컴파일하여야	
p.36	이 명령들은 <code>\maketitle</code> 을 부르기 전에 쓰여야 한다.	이 명령들은 <code>\maketitle</code> 명령 앞에 놓아야 한다.	
p.36	<code>\and</code> 명령으로 여러 명의 저자 이름을 구분할 수 있다.	<code>\and</code> 명령으로 여러 명의 저자 이름을 구분하여 넣을 수 있다.	
p.36	이 명령들은 보통 책에서 —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명령들을 쓰면 보통 책에서 — 할 수 있다.	